하나님의 감람나무 태몽

(스가랴 4:1~14)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람나무 태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감람나무 태몽'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모습을 '하나님의 태몽'이라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그 태몽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감람나무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태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람나무 태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잉태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꾸신 태몽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박태선 장로를 교주로 삼은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전도관이나 신앙촌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박태선 장로는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이 말은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스스로를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감람나무라

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감람나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겨난 곡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에 나타난 감람나무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감람나무이고 감람나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감람나무가 나에 대해 하나님이 꾸신 태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단의 교주의 특징은 자신과 추종자들 사이에 구분을 둔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거의 확실한 이단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버러지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교주와 추종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저의 말씀을 듣는 분들과 저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감람나무 환상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몽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환상의 구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으며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른 쪽과 왼쪽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릇(주발)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가지로 뻗은 금관이 주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관을 타고 금색의 기름이 주발로 들어옵니다. 이 주발에서는 다시 일곱 개의 금관이 뻗어서 하나의 등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에는 심지가 있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감람나무 가지의 금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기름은 주발에 모였다가 일곱 개의 금관을 통해서 각각의 등잔으로 보내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점은 각 상징물을 분리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잔대 따로 떼어내고, 주발 따로 떼어내고, 금관을 따로 떼어내고, 감람나무를 따로 떼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와 일곱 개의 등잔대가 주발과 두 차례의 금관으로 연결돼 있는 전체를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각각의 상징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해하기 쉬운 등잔과 기름의 상징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0절에서는 등잔을 두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앞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돌은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눈이라 하신 일곱 개의 등잔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일곱 등잔을 곧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다는 의미로써 계시록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써의 교회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환상의 논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기름은 주로 성령으로 해석합니다만 감람나무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서 성령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으레 성령이고 등잔이나 촛대는 으레 교회만을 의미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환상의 전체적인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가 감람나무입니다. 또한 기름부음 받은 자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기름부음 받은 자이고 이 기름부음 받은 자가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을 상징하는 등잔대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환상에 대한 이해의 열쇠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주어집니다. 지난 장에서 언급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스룹바벨은 정치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재건 재개라는 중차대한 결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스룹바벨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재건이라는 과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당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감람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3장의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는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감람나무가 되라는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라는 것이고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성전재건의 과제 앞에 서 있는데 성전재건의 과제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과업이 아닌 세상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재건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온 세상의 주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되는 것,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름부음을 받는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본래 기름부음의 의미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기름부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성전재건 과업과 같은 삶에서 주어지는 일들 앞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 온 세상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감람나무의 태몽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전재건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때마다 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답게 세상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등지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주발에 기름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로 쏟아서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에 일곱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켜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눈이 켜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는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등잔처럼 켜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등진 세상일들은 하나님께서 일곱 개의 눈이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도록 해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재건을 앞둔 스룹바벨은 난관에 봉착해있었고 유대 사람들은 성전건축에 대해 적극적일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고 타민족의 방해 또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여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예상되는 성전의 모습에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룹바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감람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재건은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룹바벨이 성전재건에조차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마음은 감람나무가 되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가 되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보시기에 좋도록 성전재건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로서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일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장님이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일곱 개의 하나님의 눈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람나무 태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람나무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온 세상의 주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로 앞에 두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자리에 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없어도 온 세상의 주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뻗어 나온 가지에서 주발에 모이게 되는 기름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주발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은 우리 삶의 일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이 세상 전체를 살피시며 인간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악의 힘을 통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살피실 때에는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창조적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우리는 감람나무가 되어야 하고 감람나무가 되기 위

해서는 온 세상의 주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름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와 연합함으로써 기름부음 받은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등진 세상에 대해서는 일곱 등잔과 같은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번쩍 뜨이실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 일 등에 대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몽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성취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일체가 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떠지고 눈길 닿는 곳마다 보시기에 좋은 창조적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